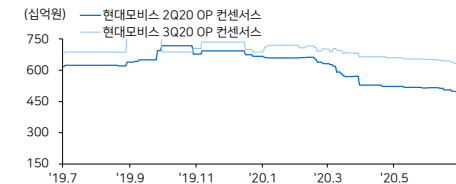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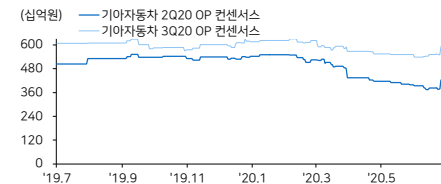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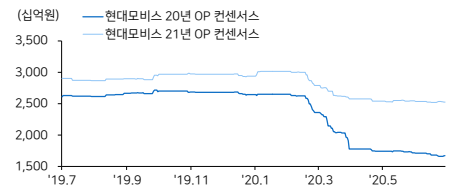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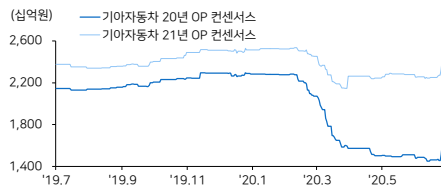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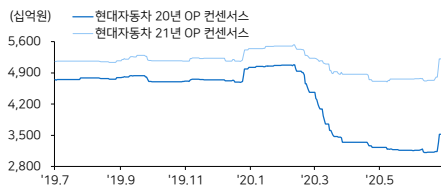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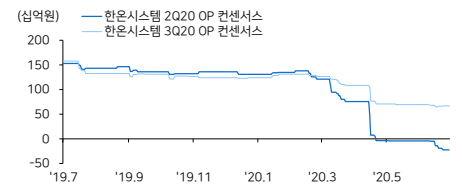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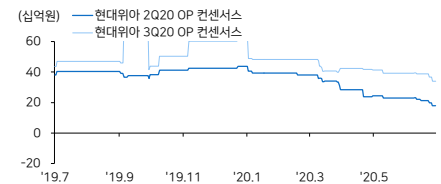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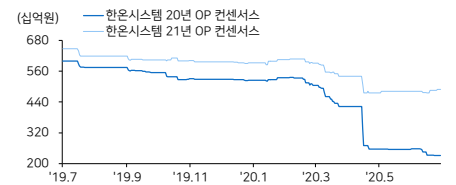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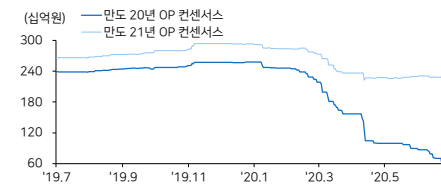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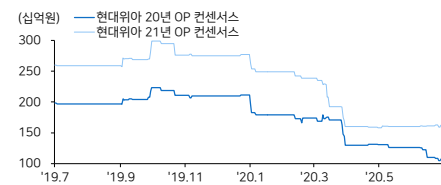


##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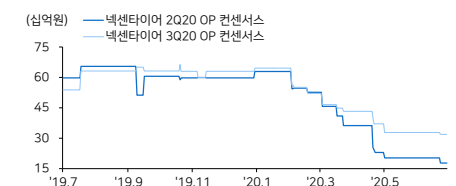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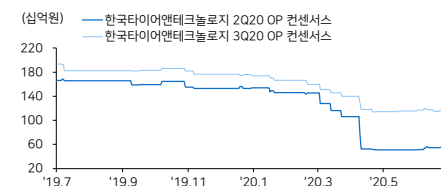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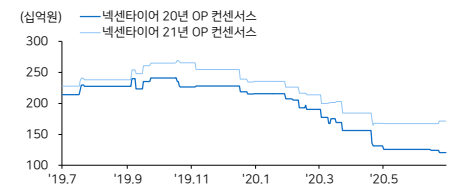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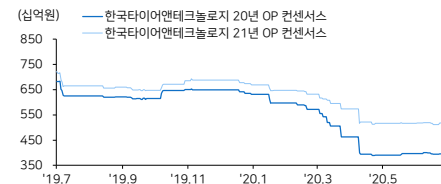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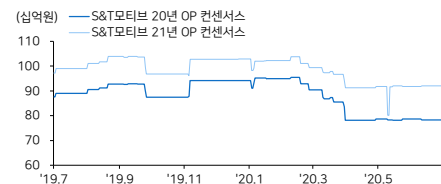
### 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### 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### 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

### Tesla batteries to get 20% energy density increase -Panasonic (Electrek)

Panasonic says that Tesla's '2170' batteries produced at Giga Nevada are going to get a 20% increase in energy density over the next five years, which could result in significant performance improvements.  
<https://me2.do/I5JE4p0y>

### 쏘카·현대차, 데이터 공유 나선다 (블로터)

쏘카가 현대자동차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 손잡음, 쏘카와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쏘카 서울 사무소에서 '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'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 
<https://bit.ly/33cSo5l>

### 현대모비스, 연구개발 인력 5000명 넘었다 (CEO스코어데일리)

현대모비스의 연구개발(R&D) 인력이 올해 5000명을 돌파. 자동차 산업의 미래 3대 신기술인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, 전동화 연구에 매진하면서 관련 연구인력의 충원도 적극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.  
<https://bit.ly/3f9HHm4>

### 르노코리아 '빚비율 1위'...상반기 판매대수 20%대 급감 (파이낸셜뉴스)

일본 도요타의 올 상반기 세계시장 판매대수가 20%대로 급감. 다만, 경쟁업체인 독일 폭스바겐보다는 선방, 상반기 기준으로 6년만에 세계 판매대수 1위로 올라섬.  
<https://bit.ly/3Vef7J>

### 현대차그룹 임원 인사에 반영된 '정의선의 시그널' (팩스넷뉴스)

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올해 그룹 임원인사에서도 성과와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반영, 급변하는 기술·시장환경에 대응한 조직체계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이번에도 고스란히 인사에 녹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옴.  
<https://bit.ly/3JWBzli>

### 현대차, 첫 차세대 전기차 NE를 국내보다 유럽에 먼저 내놓을까 (비즈니스포스트)

현대차는 현지 전략형모델을 빼고의 지금껏 새 모델을 국내에 가장 먼저 내놓았는데 차세대 전기차 유럽시장에 먼저 내놓는 이례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음.  
<https://bit.ly/39J9ut1>

### 만도, 2분기 영업손실 759억원...적자전환 (데일리한국)

만도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75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30일 공시. 매출은 1조1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.8% 감소. 당기순손실은 1119억원을 기록.  
<https://bit.ly/3f9Hvdq>

### 미쓰비시,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철수 (글로벌이코노믹)

일본 미쓰비시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철수.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더 이상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어떤 신모델도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방침. 현재 출시 중인 모델들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만 판매.  
<https://bit.ly/2BIGAMY>

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경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